



폭염 속 사려니숲의 여름 풍경 연일 30℃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6일 서귀포시 사려니숲을 찾은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청량한 기운이 가득한 숲속을 거닐거나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 로드맵 윤곽

이달 중 행개위 위원 15명 위촉... 내달초 첫 회의
연구용역지시서 검토 후 과제 내용 등 최종 확정
용역 진행 과정에서 도민의견 수렴·여론조사 병행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제주자치도는 다음달 초 오영훈 제주지사가 6·1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을 위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 추천 4명, 행정시 추천 각 1명, 도청 공무원 2명, 지방자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 등 7명이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8월 초 첫 회의를 시작으로 3~4회 회의를 개최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연구용역 과업 지시서 검토 작업을 진행한 후 과제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제주도는 연구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해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용역 결과는 오는 2023년 12월

나올 예정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행정구역 조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한 만큼 국회와 중앙정부 설득을 위한 방안도 용역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제주도는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의 의견 등을 청취한다.

제주도는 2024년 하반기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이어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 6월까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준비를 위한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영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하다. 새 정부가 이를 허용해 줄지 우려스럽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주민자치 확대 등 긍정적인 것만 부각시켜 왔는데 공무원 증원과 청사 신축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된다. 도민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찬성을 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제주도정이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앞서서기 보다는 위원회에 모두 맡기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른 업무에 전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기초자치단체 몇개를 도입한다고 미리 확정하지 말고 여러가지 안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도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대로그자

오영훈 도정 출범 <4> 행정의 신뢰성

지사 입맛대로... 행정 불신만 키워

각종 사업·위원회, 지사 의중따라 오락가락
민선8기 성공 위해선 행정 신뢰부터 확보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성공 안착을 위해서는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주지사의 입맛에 맞춰 정책을 결정하고 변경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도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지난 2015년부터 본격 추진해온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지난해 11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JCC(주)에서 제출한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 부결처리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사업자인 JCC(주)는 지난 2020년 7월 도개발사업심의위가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리자 건축물 연면적과 객실수를 줄이는 내용으로 사업 계획을 수정했지만 사업은 좌초됐다.

오라관광단지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의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 가운데 하나였다. 1997년 2월 오라관광지구로 확정된 후 개발사업이 시작됐으나 잦은 사업자 변경으로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다.

그러던중 JCC(주)가 나타나 2015년 11월 개발사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후 도시계획심의, 재해심의, 교통심의, 도시건축 심의, 환경영향평가 분안 조건부 통과했으나 제주도가 막판 제시한 '자본검증'이라는 새로운 카드로 인해 사업이 백지화됐다.

제주도의 이같은 결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신을 안겨 주었다.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는 성과는 얻었지만 행정의 신뢰도는 추락했다.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도 문제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대에 지하3층 지상 14층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016년 9월 이곳에 680여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 도시공원 기능이 사라지는 것과 경관훼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제주도는 2017년 이곳에 1400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허용해 주었다.

이에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제주도의 위원 위촉도 문제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도시계획위원회 건축분야 위원 위촉을 하면서 제주지역 건축사는 배제했다. 제주 건축사들이 이권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당시 도내 대형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지역 건축사를 도시계획위원회 건축분야 위원으로 위촉하고 또 서울지역 건축사 2명을 3년 연임시키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건축사회는 문제를 제기했고 제주도는 앞으로 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전직 공무원은 "사업자들이 예측을 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며 "행정이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면 결국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중소기업이 웃는 그날까지 😊

중소기업공제기금이 함께 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언제나 간편하게

홍보대사 이용식

창립 60주년
중소기업중앙회

단기자금 대출
부금의 최고 3배 이내
지차체 이자 지원(연1~3%)

비대면 원클릭 대출
부금의 1.5배까지 / 서류없이 즉시 송금

노란우산 연계 대출
노란우산 가입고객 / 최대 2천만원(연4.5%)

부금 만기이자 적립
월 10~300만원(3·4·5년)
만기 후 장려금 지급(매 3개월)

문의 **064-758-8580**(내선번호 2361#) | fund.kbiz.or.kr